

## 좌절하지 마세요, 마법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지”, “친구들은 다 있는데 왜 나는 축구화가 없는 거야?” 좌절하면서 열등감에 젖어 지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좌절하진 마세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축구 선수 윌리》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 허은미 옮김 |  
웅진닷컴 | 32쪽 | 값 7,500원

윌리는 늘 했던 행동을 반복하고 보도블록의 금을 밟지 않고 다니는 등 스스로 금기 사항을 만드는 친구입니다. 소심한 성격에 편집병까지 있는 아이지요. 그래서 축구화도 없고, 친구들에게 패스 한 번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고 다니죠. 그러나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준 낡은 축구화 덕분에 용기를 가집니다. 돌아가신 아빠를 닮은 남자가 준 축구화를 신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자신감도 갖게 되거든요. 결국 낡은 축구화가 마법을 부리는 거라 믿으며 자신감을 갖고 축구경기를 준비한 윌리. 그렇지만 정작 축구시합 날 축구화를 깜빡 잊고 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윌리는 이제 축구화 없이도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거든요.

이 책은 페이지 곳곳에 독특한 코드를 숨기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선을 밟지 않고 다니는 윌리의 편집병, 윌리에게 다가온 신비한 남자의 존재 등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축구연습 때 공 한 번 차보지 못하고 좌절했던 윌리의 뒷모습에서 우리들의 얼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후 낯선 남자를 생각하며 미소를 띠는 윌리. 윌리가 미소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새 축구화가 있어서 경기를 잘한 것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품고 노력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럴까?” 고민하고 위축되기보다는 윌리처럼 열등감을 버리고 자신감을 키워나가세요.



## 블루머 패션, 여성을 위한 옷을 유행시켰어요

서양 고전영화에 나오는 여배우들이 자주 입었던 코르셋. 여러분들은 코르셋이 몸을 날씬하게 보여준다고만 알고 있죠? 그렇지만 코르셋은 여성의 체형을 기형화하고 소화장애, 장기기형 등을 부르는 무서운 ‘옷’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대에는 건강에 지장을 주는 코르셋을 그냥 입고 다닐 수밖에 없었죠. 18킬로그램이나 되는 드레스, 겹겹의 답답한 속치마 등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입고 다녀야 하는 옷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19세기에 “드레스가 못마땅하다”고 솔직한 발언을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아멜리아 블루머. ‘블루머 패션’을 유행시키며 여성의 자유스러운 복장을 주장하고, 여성에게도 투표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틸리’라는 신문을 만든 그녀의 업적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책은 지금 시대의 여성들이 무거운 드레스를 벗고 바지를 입는 데 크게 일조한 아멜리아 블루머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한 여성의 업적을 전기 형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우스꽝스러운 사건들을 첨가해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간 블루머를 보며 기겁하는 사람들의 표정, 수군거리는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블루머의 용기와 고집스러운 면모가 드러나는 장면에서는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기존의 낡은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가는 것의 의미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여성운동’의 역사를 알려주는 역사책 역할도 합니다. ✎



《치마를 입어야지, 아멜리아 블루머!》  
새너썬 글 | 채슬리 맥라렌 그림 |  
김서정 옮김 | 아이세움 | 32쪽 | 값 8,000원



김청연 기자

## 어른들 편견 때문에 고민만 늘어가는 우리 아이들

다빈이는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입니다. 학교에서는 반장을 맡고 있는 똑똑한 학생이고 집에서는 엄마말을 누구보다 잘 듣는 성실한 어린이죠. 어느날 그런 다빈이에게 지방에서 전학 온 종호가 친구가 되자고 손을 내밉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콤플렉스가 많은 종호. 그러나 착한 다빈이는 친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용실 집 아이가 놀러 올거라는 다빈이의 말에 좋지 않은 표정을 짓는 엄마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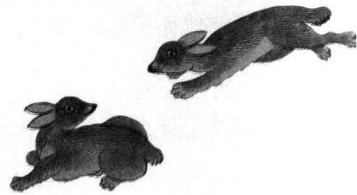


《막다른 골목집 친구》 황선미 지음 | 두산동아 | 104쪽 | 값 7,500원

다빈이는 친구를 왕따시키지는 않지만 왕따당하는 친구를 감싸지도 못합니다. 엄마가 원하는 친구와 자신이 생각하는 친구 사이에서 갈등하기 때문입니다. 황선미 씨는 이 작품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편견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상처를 받는지 그 감정들을 실감나게 잡아냅니다.



결국 이야기는 종호가 친구의 돈을 훔쳤다고 오해했던 다빈이가 미안한 마음에 막다른 골목길에 사는 종호를 찾아가면서 끝을 맺습니다. 다빈이는 산동네 막다른 골목을 내려오면서 “엄마에게 다시는 나랑 안 논다고 말하라”는 종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빈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 자녀의 친구가 어떤 아이인지 보기도 전에 “어떤 아파트에 사니?”, “부모님은 어떤 회사에 다니시니?” 묻기 바쁜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야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읽으며 어른들의 속물 가득한 잣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워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우리민화 속 동물들 보며 우리가락 느껴봐요

요즘 어린이들 곁에는 그림책, 만화, 애니메이션 등 그림을 접할 다양한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통로가 없던 시절에 살았던 어린이들은 어떤 그림을 보며 자랐을까요? 바로 민화입니다. 세련미 넘치는 그림은 아니지만 소박하면서도 구수한 동양적 정서를 뽐어내는 민화를 펼쳐놓고 놀았던 시절. 《토끼의 소원》을 펼쳐 들고 그 당시로 가보면 어떨까요.



《토끼의 소원》 윤연수·이호백 기획·글 | 재미마주 | 32쪽 | 값 8,000원

《토끼의 소원》은 재미마주와 국내 유일의 민화전문 박물관으로 알려진 가회박물관이 손잡고 기획한 민화그림책 시리즈 1편입니다. 14점의 민화그림과 짙막한 이야기를 통해 인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독특한 책이지요. 즐겁게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 토끼가 여러 동물들의 소원을 이야기로 풀어 준 덕에 호랑이에게 잡히지 않고 돌아왔다는 짙막한 이야기. 이 속에서는 재담으로 위기를 넘긴 토끼의 지혜로움이 빛을 발하죠. 그리고 닭과 거북이, 학, 원앙, 원숭이, 개 등 조상들을 상징하는 민화 속 동물들이 건강, 장수, 부부간의 사랑 등을 바라왔다는 사실에서 옛 조상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꿈꿨는가를 눈치채도록 안내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토끼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꽤 많은 토끼는 ‘풍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호랑이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 진짜 소원이었습니다. “귀뿔귀뿔 가을왔네 / 이강산에 가을일세 / 귀뿔귀뿔 가을왔어 / 방아찢어 떡만드세”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나는 토끼 그림을 비롯해 다양한 동물 민화를 보면 “얼씨구, 좋구나.” 저절로 어깨춤을 추게 됩니다. **한글**

김청연 기자